

## 2020년 5월 10일 “아버지의 집에서”(녹 15:25~32)

오늘은 본문속에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가정의 차원에서 어떤 진리의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 [1] 가정

가족은 가장 가까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는 복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사랑의 샘을 공유하고 있는데, 가족 모두 이 샘으로 날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 함께 걷고 함께 살지 않으면 가정의 복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가족은 더 사랑하기 위해 함께 걷는다는 목적을 견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톨스토이 “모든 행복한 가족들은 서로 닮은 데가 많다. 그러나 모든 불행한 가족은 그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하다”

가족 일원 사이에 구체적인 협동이 필요합니다. 어느 가족이든 사랑의 샘을 공유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함께 사랑의 샘으로 접근하여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일은 모든 가정사에 포함될 것입니다.

### [2] 아버지의 집

본문에 나오는 세 식구(아버지, 두 아들)의 가정에는 함께 돕는 협력과 아름다운 공생이 보입니까? 둘째가 집을 나가 돌아오기 전까지 각자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다시 쫓겨나지 않고 영접받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풍성하게 당신 소유를 풀어 주시고 함께 즐기는 잔치를 벌이십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공유하는 사랑의 샘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아들: 아버지 뜻을 잘 따르고 성실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보고 대노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 감추어졌던 사실이 폭로됩니다. ‘아버지는 내게 뭐 하나 잡아 주신 것 있습니까?’ 그리고 또 돌아온 동생을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렸다고 맹비난합니다. 그동안 이 아들은 참고, 억누르고, 관참은 척하고 살았는데 결국 터진 것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만아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아들의 상황에 처할 때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동생을 영접하시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그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성질대로 행할 것인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면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가족으로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3] 가정에 대한 안목

(1) 가정에 대한 안목이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교육하고 도와야 세상에서 성공할까에 대한 안목이 아니라 다른 식구가 가정의 자기 자리에서 하는 일과 의미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안목입니다. 가족이 자기 자리에 존재하지 않거나 자기 일을 감당해 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가족들로 인해 받는 혜택과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영적, 육적으로 느끼는 안목입니다.

무엇보다 부모에 대한 이해와 긍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역기능적인 가정이 많지만 자식이 장성했을 때는, 부모님은 자기 현실 속에서 때로는 절박하고,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애써서 사랑의 샘을 함께 마실 수 있도록 고된 삶을 걸어오신 것을 알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면 만아들과 같은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2)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샘이 나를 향해 열려 있음을 안 자녀는 삶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집에 영접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누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방식의 삶이 우리 현실과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도 누구든지 한 식구가 사랑의 샘물을 퍼서 내게 마시게 하는 작은 노력을 인정하면 나도 우리 가정에서 영접받고 새로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음을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또한 노력해서 식구들에게 열심히 사랑의 샘물을 퍼날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의무이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부요하게 하는 희망의 일이라는 확신이 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본문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저마다 다양하게 맡아주는 영적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 <맺음>

오늘 본문에서 이 가정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는 말해주지 않지만 이 말씀의 open end 를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보도록 하십시오. 성도님들 가정마다 모든 식구가 사랑의 샘을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 <생각해 볼 것>

1.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 감당해야 할 축복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적어봅시다.
2. 오늘 본문의 인물들을 볼 때 특별히 내게 발견되고 고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